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 내 자녀폭력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198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 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립되었고, 관련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지속해왔다. 그 동안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부간 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집중되었는데, 폭력 가정과 비폭력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행태를 비교 연구한 Scott(1974)는 아동기에 가족학대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성장기에 이르러 가정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아동기에는 부모에 의한 일방적 폭력이 대부분이지만,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에게 폭력으로 반응하거나 형제자매 또는 이웃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영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경혜, 1998). 가정폭력의 영향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기초적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 자행되는 가정폭력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물론 사회적 폭력의 근원을 단절한다는 입장에서 철저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시간적으로는 짧으나 그간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남진(1997)의 아동학대의 현황 연구에 의하면 1997년 5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1,094가구를 표집하여 조사한 자료에서 한국의 아동 학대 발생율은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아동 5명당 2명이 아동학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7년 11월말까지 신고된 아동학대건수는 총 3,489건, 1996년 한해 2,155건에 비해 1년 사이에 1.6배나 늘었다. 이는 870건이었던 1995년보다는 무려 4.3배나 증가한 수치로 그 대부분(95%)이

부모에 의한 것이다. 유형별 학대는 ‘무관심’으로 대표되는 방임이 4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력 등 신체적 학대가 4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17%, 성적학대 3.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정에서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아동 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광일, 고복자(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구타를 경험한 아동이 구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친구와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특성을 보였다. 최윤라(1988)의 연구에서도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받지 않은 아동보다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였으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아이들의 특성을 연구한 김정준(1987)의 연구에서는 학대받은 아이들의 60% 이상이 반사회적 행동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김현수(1997)는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과 피공격성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을 발달시킨다는 일관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가정에서의 피학대 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회적 위축을 들 수 있다. 신체적 학대가 아동에게 초래하는 정서 및 행동상의 후유증을 알아보기 위하여 권자영, 안동현, 이정숙(1992)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위축양상 그리고 두통, 복통, 구토, 천식 등의 신체증상 요인에서 신체적 학대집단과 비학대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 학대받은 아동은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없으며 복잡하고 성가신 행동을 하기 싫어하며 기분이 저조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짜증을 내며 또래와도 공격적이지 않으면 관계를 기피

한다(Brenner, 1984). 최윤라(1988)는 학대로 인하여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감정이입능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가정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의 행동문제를 과잉 행동, 공격 행동 등의 외향화된 행동문제(externalizing problem)와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내향화된 행동 문제(internalizing problem)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자기 자신의 내향화된 행동문제와 외향화된 행동문제를 모두 높게 지각하였다(Stenberg, Lamb, Greenbaum, Cicchetti, Dawud, Cortes, Krispin, & Lorey, 1993). 또, 많은 연구들이 학대받은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Olweus, 1994; Perry & Kennedy, 1992; Pierce, 1990; Schwartz, Dodge, & Coie, 1993), 공격성과 위축의 특성을 발달시킴을 보고하고 있다(George & Main, 1979; Hoffman-Plotkin & Twentyman, 1984; Kaffman & Cicchetti, 1989).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대경험이 외향화된 행동문제라 할 수 있는 공격성과 내향화된 행동문제라 할 수 있는 대인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대의 하위유형별로 살펴봄과, 또한 공격성과 대인불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실시된 것으로 먼저 주요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이다. 아동 학대를 정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아동양육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 수준을 설정하

는 것이며 부모의 권위가 어느 수준에서 제한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Valentine, Acuff, Freeman, & Andreas, 1984). 그러므로 아동 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한 문화, 한 계층에서는 학대로 간주되는 것이 다른 문화, 다른 계층에서는 학대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 학대는 정의 자체가 다양할 수 있고 모호한 성격을 띠 수 있다. Gil(1970)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acts or inaction)의 조건과 개인, 제도, 사회의 행위나 태만'이라고 정의했다. Martin과 Walters(1982)는 아동 학대에 의도적, 비의도적 방임과 학대 행위를 모두 포함하면서 심리적, 성적, 신체적 학대와 무관심 및 부모로서의 양육 포기 등 5영역으로 분류하였다. Sweet와 Resick(1979) 그리고 Kinard(1979)는 아동 학대를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의 5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김미경(1988)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방임의 4영역으로 구분하였고 Kauffman과 Cicchetti(1989), 이소희(1992)와 이주연(1996)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3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아동 학대의 하위 영역 구분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광의의 아동 학대 개념에 부모의 적극적 학대와 소극적 방임이 포함되며 적극적 학대는 다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의 유형 중 초등 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빈도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세 가지 유형을 학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나 양육자에 의해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협박을 가하고,

습관적이거나 극단적인 말로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인 공격을 일삼고, 경멸,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등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처우 형태를 포함한다. 또 아동방임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공격성이라는 개념은 외부에 나타나는 행동뿐 아니라 외향화된 행동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혹은 화를 나게 하는 정서상태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 그리하여 공격성은 성격특성이나 생물학적 과정, 본능, 일상적인 반응, 학습된 습관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신체적, 언어적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Buss와 Durkee(1957)는 공격성의 유형을 종류에 따라 사람들에게 행하는 육체적 폭력 행위는 폭행(assault),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악의 있는 헐담이나 짓궂은 장난을 간접적 공격성(indirect aggression), 쉽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것을 흥분성(irritability),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부정성(negativism), 실제적 혹은 상상적인 확대로 인해 현실에 대해 갖는 분노의 감정으로 타인을 질투하고 증오하는 것을 원한(resentment), 타인을 믿지 못하며 지나치게 세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투사하는 것을 의심(suspicion),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것을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on)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공격성 유형 중 폭행,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에 원한과 의심을 합쳐 적의성(hostility)이라 하였으며, 적의성은 공격성과 일치될 수도 있지만 공격성 반응의 부분처럼 개방적으로 언어화되지 않는 지속적인 태도로서 내적으로 강화된 공격성이라 정의하였다. 위에서 분류한 공격적 행동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어느 정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동들이다. 그러나 그 행동의 횟수나 강도가 클 때 ‘공격성’으

로 분류하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공격적인 아동’으로 지칭한다.

불안은 개인의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신체 내부 기관의 흥분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개인의 성격 형성과 발달 그리고 정신 역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안이 심한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 평가와 자아존중감이 낮아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애로를 겪게 된다. 불안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인간이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큰 장애를 느끼는 것이 대인불안(Interpersonal Anxiety)이라 할 수 있다. Schlenker와 Leary(1982)는 대인불안이란 실제 혹은 가상의 상황에서 대인적 평가를 예견함으로써 생기는 인지적, 정서적 경험의 총체라고 말한다. 김창은(1990)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진 대인불안의 특징을 조사하여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첫째,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둘째, 불안이나 신경증 같은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셋째,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는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 등의 인지적 특징을 포함한다. 또, 일상적인 사회적 반응의 붕괴와 같은 행동적 증후를 뚜렷이 나타낸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발생률과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신체적 학대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점차 발생률이 확대되어 가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공격성과 대인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대경험과 공격성 수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학대경험과 대인불안 수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학대경험은 공격성과 대인불안 중 어느 것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510명이었는데 실제의 연구에서는 불성실하게 대답하거나 미회수된 11명을 제외한 499명을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학대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대 경험 척도는 Straus

(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 폭력 척도를 번안 수정한 것과 강경아(1998), 권자영(1991), 최윤라(1988)의 연구를 참조하고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은 현재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대경험 척도는 신체적 학대가 7문항, 정서적 학대가 9문항, 그리고 방임이 10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의 2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구는 Likert 방식의 4점 척도에 따라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입장에 비추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점을, ‘1년 1~2차례’라는 응답에는 2점을, ‘한 달에 1~2차례’라는 응답은 3점을, ‘1주일에 1~2차례’라는 응답에는 4점을 부여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신체적 학대가 .70, 정서적 학대가 .81, 방임이 .75이다.

공격성 척도

Buss와 Durkee(1957)가 개발한 적의성 검사(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 of Hostility)의 일부로 된 공격성 진단검사와 Murray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황정규(1964)의 욕구진단 검사 중 공격욕구검사를 참고로 하여 5개 변인에 총 30문항을 추출·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흥분성이 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Likert 방식의 4점 평정 척도에 따라 공격성의 행동 수준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에 1점을, ‘대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에는 2점을, ‘가끔 그렇다’ 라는 응답에는 3점을, ‘자주 그렇다’라는 응답에는 4점을 부여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신체적 공격성이 .69, 언어적 공격성이 .67, 간접적 공격성이 .72, 부정성이 .70, 흥분성이 .70이다.

대인불안 척도

대인불안 검사는 주영숙(1985)이 제작한 일반

표 1.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집단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56	51.3
	여자	243	48.7
나이	11세	37	7.4
	12세	262	52.5
	13세	200	40.1
총계		499명	100.0%

불안검사와 대인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어 온 사회적 회피 및 우울척도(김창은, 1990), 그리고 피험자의 부끄러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부끄러움 수준검사(양승관, 1991)을 참고하여 권영배(1993)가 제작한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는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인불안의 총괄적 의미로서 일반적 대인불안, 집단사회생활에서 갖게 되는 대인불안,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불안, 친구나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불안, 항상 대면하는 선생님이나 웃어른과 같은 특정인과의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대인불안, 이성에 대한 대인불안, 미지인과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으로 나누어져 있다. 문항구성은 각 하위척도별로 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Likert의 방식의 5점 평정척도에 따라 피험자의 대인불안 수준이 '전혀 안 그렇다'라는 응답에는 1점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에는 2점을, '보통이다'라는 응답에는 3점을,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에는 4점을, '항상 그렇다'라는 응답에는 5점을 부여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일반적 대인불안이 .68, 집단사회적 대인불안이 .62, 친구에 대한 대인불안이 .76, 특정인에 대한 대인불안이 .64, 이성에 대한 대인불안이 .75, 미지인에 대한 대인불안이 .73이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공격성과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또 독립변인의 하위변인들이 종속변인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및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공격성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는 특히 흥분성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고($r=.35, p<.001$), 언어적 공격성과 가장 낮은 상관이($r=.30, p<.001$)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공격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32, p<.001$), 부정성과 가장 낮은 상관($r=.27, p<.001$)을 보인다. 방임은 신체적 공격성과 부정성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r=.24, p<.001$), 흥분성과 가장 낮은 상관을($r=.20, p<.001$)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격성은 신체적 학대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방임과는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다(표 2).

학대의 하위요인이 공격성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격성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각 하위요인별로 상대적인 설명력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단계선택(stepwise)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공격성에 대해 학대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모두 유의한 정적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학대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학대가 15.6%로 가장 큰 정적 설명력을 가진 반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공격성에 대해 유의한 정적 설명력을 보이나 그 수치가 각각 2%, .9%의 아주 적은 정적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에 대해 학대의 하위유형 중 신체적 학대가 가장 큰 영향

표 2.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공격성에 대한 상관분석

변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흥분성	공격성 전체
신체적 학대	.32***	.30***	.34***	.32***	.35***	.43***
정서적 학대	.32***	.31***	.29***	.27***	.31***	.36***
방임	.24***	.22***	.21***	.24***	.20***	.27***
학대 전체	.37***	.35***	.35***	.34***	.36***	.43***

주. *** $p < .001$

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표 3).

학대경험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적 학대가 공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적 학대는 학대받는 아동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공격적 모델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그 자체만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신체적 학대와 수반되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대경험과 대인불안의 관계

학대와 대인불안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인불안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신체적 학대와 정

서적 학대, 방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는 특히 일반적 대인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고($r=.40, p<.001$), 미지인에 대한 대인불안이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다($r=.26, p<.001$). 정서적 학대 또한 일반적 대인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29, p<.001$), 친구에 대한 대인불안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다($r=.17, p<.001$). 방임은 이성에 대한 대인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22, p<.001$), 일반적 대인불안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다($r=.13, p<.01$). 전체적으로 볼 때 대인불안은 신체적 학대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방임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다(표 4).

학대의 하위요인이 대인불안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인불안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 보면 대인불안에

표 3. 공격성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R^2_{cb}	t
공격성	신체적 학대	.263	.156	.156	4.423***
	정서적 학대	.133	.176	.020	2.156*
	방임	.121	.185	.009	2.466*

주. * $p < .05$ *** $p < .001$

표 4.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대인불안에 대한 상관분석

변인	일반적 대인불안	집단 사회적 대인불안	친구에 대한 대인불안	특정인에 대한 대인불안	이성에 대한 대인불안	미지인에 대한 대인불안	대인불안 전체
신체적 학대	.40***	.27***	.25***	.32***	.33***	.26***	.38***
정서적 학대	.29***	.20***	.17***	.27***	.23***	.22***	.29***
방임	.13**	.14**	.19***	.21***	.22***	.15**	.21***
학대 전체	.46***	.27***	.24***	.34***	.32***	.26***	.38***

주. ** $p < .01$ *** $p < .001$

대해 학대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학대만이 유의한 정적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불안에 대해 신체적 학대가 갖는 설명력은 15.7%이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대인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불안에 대해 학대의 하위유형들이 갖는 영향력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표 5).

학대경험과 대인불안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경험이 높은 집단일수록 아동의 대인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적 학대가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대인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이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향화된 행동문제(Internalizing problem)를 일반 아동들에 비해 자기 자신의 내향화된 행동문제를 높게 지각한다는 Sternberg와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들의 공격성과 대인불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아동들의 공격성과 대인불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학대경험은 아동의 공격성과 대인불안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며, 학대의 하위유형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학대가 공격성과 대인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학대가 공격성과 대인불안에 미치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과 대인불안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공격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변인과 관련해서 공격성과 대인불안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공격성에서는 부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표 5. 대인불안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t
대인불안	신체적 학대	.30	.157	5.28***

주. *** $p < .001$

하위변인은 모두 남학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인불안에서는 친구에 대한 대인불안을 제외하 나머지 하위변인 모두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의 특성상 남학생은 문제행동을 밖으로 표출하는 반면, 여학생은 문제행동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학대와 공격성간의 상관관계 검증과 학대 수준 고·저 집단의 공격성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대와 공격성은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으며, 학대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공격성 수준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공격성에 대해 학대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모두 유의한 정적 설명력을 갖는데, 그 중 신체적 학대가 가장 큰 정적 설명력을 가진 반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공격성에 대해 유의한 정적 설명력을 보이나 그 수치가 아주 낮았다. 즉, 이것으로 신체적 학대가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신체적 학대가 학대받는 아동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공격적 모델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그 자체만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신체적 학대와 수반되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학대와 대인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학대와 대인불안간의 상관관계 검증과 학대 수준 고·저 집단간의 대인불안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대와 대인불안은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으며, 학대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대인불안 수준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 대인불안에 대해 학대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학대만이 유의한 정적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대의 하위유형

들이 갖는 영향력 중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이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향화된 행동문제(Internalizing problem)를 일반 아동들에 비해 자기 자신의 내향화된 행동문제를 높게 지각한다는 Sternberg와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대가 공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양은 18.5%, 학대가 대인불안을 설명할 수 있는 양은 15.7%이다. 이는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과 대인불안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는 아동들의 성격형성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 되어왔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공격성과 대인불안 외에도 우울이나 자존감, 폭력성 등 많은 부분에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학대경험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이나 집단 따돌림 현상과 같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가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대의 특성상 실제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로 학대의 영향을 고려함에 있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유형 학대의 영향력을 엄격히 통제할 수 없었는데 다음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례수집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아 (1998).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의 부적응.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남진 (1998). 아동학대의 현황과 법적 대응.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 1, 265-289.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영숙, 홍강의 (1987).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5, 37-52.
- 권영배 (1993). 자기표현훈련이 국민학교 아동의 대인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자영 (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자영, 안동현, 이정숙 (1992).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 73-83.
- 김광일, 고복자 (1983).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6, 66-81.
- 김무길 (1980). 공격성 조절을 위한 상담모형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22권, 83-98.
- 김미경 (1988).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보고서, 14, 37-72.
- 김정준 (1987).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은 (1990).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대인불안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치영 (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영화 (1986). 한국 아동 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관 (1991). 부끄러움 극복 프로그램 실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1992). 교사를 통한 유아 학대 확인에 관한 연구(1). 보건과학연구소보, 2, 11-17.
- 이주연 (1996).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또래수용과 인성특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종혁 (2001). 부모의 폭력유형에 대한 고등학생의 지각수준과 통제소재 및 적대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영숙 (1985). 정의적 특성의 측정도구 편감. 제5권. 서울: 중앙교육평가원.
- 최윤라 (1988).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 (1998). 가정 내 세대간 폭력과 청소년,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홍강의 (1987). 아동 구타의 대책과 예방.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6, 82-93.
- 황정규 (1964). 욕구진단검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 연구실.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enner, A. (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Lexington, Mass: D.C. Heath and company.
- Burgess, R. L., & Conger, R. P. (1978). Family interaction in abusive, neglected and norm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49, 1163-1173.

- Buss, A. H. (1951). *The Psychological Aggression*, New York: John Wiley.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1, 343-349.
- Dollard, J., & Miller, N. E. (1950).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An analysis of terms of learning, thinking and culture*. New York: McGraw-Hill.
- Fontana, V. J., Donovan, D., & Wong, R. J. (1963). The "Maltreatment Syndrome" in childre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69, 1389-1394.
- George, C., & Main, M. (1979). Social interactions of young abused children; approach, avoidance,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0, 306-318.
- Gil, D. (1970). *Violence against children*.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fman-Plotkin, D., & Twentymann, C. T. (1984). A multimoda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16-524.
- Kauffman, J., & Cicchetti, D. (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 children's sociomotional development; Assessment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16-524.
- Kempe, C. H., Silverman, F. N., Steel, B. F., Droegemuller, W., & Silver, H. K. (1962).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 17-24.
- Kinard, E. M. (1979).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abuse for the chi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82-100.
- Martin, M. J., & Wal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267-276.
- Olweus, D. (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52-875.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7), 1171-1190.
- Parke, R. D., & Slaby, R. G. (1983). Aggression: A Multi-Level Analysi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 471-481.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CA: Prentice Hall, Inc.
- Perry, L. C., & Kennedy, E.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Shantz, C.U. and Hartup, W.W.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ce, S. (1990). *The behavioral attributes of victimiz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Atlantic University, Boca Raton.
- Powers, R. J. (1986). Aggression and Violence in the Family. In A. Campbell and J. J. Gibbs(eds.). *Violence Transactions*. Oxford: Basil Blackwell.
- Rule, B. G., & Ndsdale, A. R. (1976). Emotional arousal and aggressiv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3, 851-863.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cott, P. (1974). Battered Wives, *British Journal Psychiat*, 129, 433-441.
- Sears, R. R. (1965). *Effects of Frustration and Anxiety on Fantasy Aggr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pielberger, C. D. (1977). Theory and measurement of anxiety state, In R. B. Cattell & R. M. Dreger, Handbook of modern personality theory, New York: Wiley & Sons, Inc.
- Sternberg, K. J., Lamb, M. 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Krispin, O., & Lorey, F.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4-52.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75-78.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W. Norton.
- Sweet, J. J., & Resick, P. A. (1979). The maltreatment of children: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40-59.
- Talbot, M. (1960). Panic in School Phobia, *American Journal Ortho Psychiat*, 27.
- Valentine, D. P., Acuff, D. S., Freeman, M. L., & Andreas, T. (1984). Defining child maltreatment: A multidisciplinary Overview. *Child Welfare*, 63(6), 315-327.
- Wolfe, D. A. (1985). Child abusive parents: An empirical review and analysis. *Psychology Bulletin*, 97, 462-482.

원고접수일 : 2003. 3. 26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20
게재결정일 : 2003. 6. 7



The Relations Among Child Abuse by Parents, Child's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Hye-Young Shin

Hae-Rim Choi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child abuse by parents, child's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for 499 5th and 6th graders (256 boys and 243 gir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o the relation between abused experience and aggression, all subscales of aggression are positively related with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child neglect. And the group of more abused children has higher inclination to aggression than that of less abused. Accordingly physical abuse has main influence on aggression among the types of child abuse. Second, all the subtypes of interpersonal anxiety is positively related with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child neglect. And the group of more abused children has higher inclination to interpersonal anxiety than that of less abused. Accordingly, physical abuse has main influence on interpersonal anxiety among the types of child abuse. Lastly, child abuse has a critical influence on both child's aggression & interpersonal anxiety and especially on their aggression.

Key Words : child abuse, aggression, interpersonal anxiety